

가자지구 다시 갈림길... 휴전이나 라파 지상전이나

미국, 새 중재안 제시...바이든 휴전압박 통할까 네타냐후 '공격 날 잡았다' 입으로 강경론 되풀이

반년째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멈출지, 아니면 더 심한 참사로 갈지 갈림길에 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들 전쟁 주체에 휴전을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케말과 완승으로 전쟁을 매조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치 형국은 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주변국의 중재로 계속된 휴전협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새 중재안 '권고'...바이든 압박 통할지 주목 미국 정부는 6주간 즉각적 휴전과 하마스가 억류된 인질의 석방을 위한 새

로운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질 40명(전체 100여명 추정)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의 교환, 가자지구 남부 피란민의 제약 없는 북부 복귀가 중재안의 골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협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들 의제가 자국 안보를 위해 전면 해체 대상으로 삼은 하마스의 생존과 연계되는 까닭에 신중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위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

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네타냐후 "라파공격 날 잡았다" 강경론 되풀이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미국 정부와 전례 없는 불화를 겪는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사건건 반목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도 보란듯이 강경론으로 일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영상 성명을 통해 카이로 협상에 대한 세부 보고를 받았으면서 바로 재를 뿌렸다. 그는 하마스를 궤멸하기 위해서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진입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건(라파 공격은) 일어날 것"이라며 "날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권고에 대한 또 다른 저항으로 읽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라파는 가자지구 인구 절반 정도인 10만여명이 몰린 최후 피란처로 교전 때 민간인 대량살상이 우려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반대한다.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것도 라파 참사 가능성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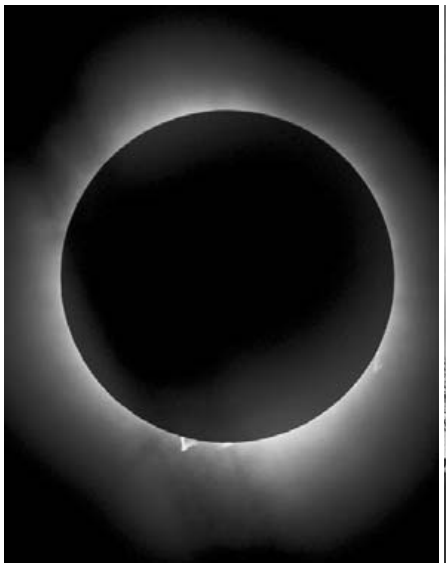
문이다. ◇공지 물린 네타냐후...협상 촉진용 강성발언일까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지상전의 날까지 잡았다고 긴장 수위를 높였지만 진의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발언의 수위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관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런 대규모 지상작전이 임박했다거나 병력의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그간 행태를 고려할 때 '날을 잡았다'는 발언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호요원 폭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인질 귀환을 촉구하는 반정부시위 등을 고려할 때 휴전 합의가 절실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특별한 결혼식' 美 개기일식 맞춰 500여쌍 웨딩마치

아산소 등서도 합동결혼식 이벤트

미국에서 7년 만의 개기일식이 관측된 8일(현지시간) 수백 쌍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완전한 개기일식이 지나간 미 남부 아칸소주 러셀빌에서는 '일로프 옛 더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합동 결혼식 이벤트가 열렸다. '일로프'(Elope)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맞아 함께 달아나는 것을 일컫는다. 이 합동 결혼식 주최측은 지난해 7월에 개기일식 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 행사를 예고했고, 커플들은 축제 티켓을 구매하고 결혼 증서 발급 비용을 내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에 모두 358쌍의 커플이 참여해 개기일식으로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지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현지시간으로 점심 때쯤 시작된 개기일식은 4분여간 이어졌으며, 이 시간 동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 하늘이 온통 깜깜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15년간 사귀어온 애슐리 스미스와 게리 크네벨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리려다 스미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차례 미뤘고, 이번 개기일식에 맞춰 결



달에 완전히 가려진 태양(왼쪽)으로 깜깜해진 8일(현지시간) 미국 오키오주 트랜턴 커뮤니티 파크에서 열린 합동결혼식 커플들이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도중 반지를 교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달에 완전히 가려진 태양(왼쪽)으로 깜깜해진 8일(현지시간) 미국 오키오주 트랜턴 커뮤니티 파크에서 열린 합동결혼식 커플들이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도중 반지를 교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혼하기로 했다. 이날 결혼식을 앞두고 스미스는 "내가 결혼하는 순간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크네벨은 "어둠의 순간이 가장 기대된다"고 전했다. 멤피스 출신의 미리엄 맥시(34)는 "결혼식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페이스북에서 러셀빌 결혼식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맥시는 "작년 내 휴대전화의 메모를 보니 4

월 8일 일식을 잊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날 내가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날에(결혼식의)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기일식 관측 경로에 있는 오키오주의 작은 마을 티핀에서도 무료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이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브라이스 리스는 "지난 3월 말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150쌍의 커플이 참가 등록을 했다

"고 전했다. 리스는 "(참가자의) 10%가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는 여행을 온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결혼식을 하러 이동한 거리는 총 1만6천600마일(약 2만6천715km)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월요일은 통상 결혼식 날짜로 선호되는 요일이 아니지만, 이날 결혼식 서비스 웹사이트 '더 나트'에는 약 750건의 결혼식이 등록돼 1년 전 같은 요일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일 오염수, 4차례 방류에도 여전히 132만 남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양이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네 차례 해양 방류로 1만9천t가량 줄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오염수가 132만6천t으로 작년 8월과 비교해 1만9천t 감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작년 8월 시작한 해양방류를 통해 오염수 3만1천t을 처분했으나, 현재도 매일 8t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감소량은 방류량보다 적었다.

교도통신은 "오염수 감소량은 약 1%로 부지 내에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19기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 이전에 방류를 통해 비운 탱크를 해제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40년이 되는 2024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할 80%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감소량은 방류량보다 적었다. /연합뉴스

태평양 원주민 지도자들 "고래, 법적 사람으로 봐야"

태평양 도서 지역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고래 보호를 위해 고래에 사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선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평양 남부 뉴질랜드 원주민 부족인 마오리의 왕, 타히티와 쿡제도 등 태평양 동부 폴리네시아 섬들의 원주민 지도자 15명은 지난주 고래의 법인격(Legal personhood·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동의 자유,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 건강한 환경, 건강한 바다, 고래 개체군의 복원"을 비롯해 고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이 이 선언문을 뉴질랜드 등 관련국 정부에 고래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로비에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